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국회토론회

정춘숙 의원, 윤종필 의원, 윤소하 의원, 간협, 보건의료노조 공동주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가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주제로 5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개최식에서 인사말을 한 윤종필 국회의원은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이 올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연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호사 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이와 관련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2012년 최초 발의된 후 8년 만에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간호사 관련 계획이 세밀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간호업무와 질 관리를 규정할 간호단독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간호사 근무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후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간호협회와 함께 손을 잡고 간호사들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병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간호사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토론회는 임상혁 서울특별시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및 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중소병원 15년차 간호사와 대학병원 20년차 간호사가 '간호사의 노동조건과 근무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단원직 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 주제로 발표했다. 박영우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인력증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때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공급 측면뿐 아니라 이직감소 및 장기근속 방안, 수급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질적 측면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월 설치된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TF'는 정식 부서가 아니어서 인력 및 업무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간호전담부서를 정식 조직으로 설치해 간호정책 관련 타 부처 및 유관단체 등 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협의의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진행상황

및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대책에는 다양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극적인 감시정책 등을 활용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사 근무환경과 노동실태' 주제발표를 한 고형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간호사들의 인간적인 삶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노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력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가장 시급한 일은 간호사의 이직을 막는 것이며, 부족한 간호사를 확충하고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한인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박진 김상기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김상기 라포르시안 편집부국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참여했다. 주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 양성평등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등 정부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가 설치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은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는 부처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이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을 하고,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며,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주요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돼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부처 양성평등전담부서 신설로 학교, 문화예술계, 직장 등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담부서가 정착돼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이 보고되면서 주요 부처의 양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과제가 포함됨에 따라 이뤄졌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도록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미투문제 현안 영역인 학교, 체육·문화예술계, 직장 등을 소관하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고용부에는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새로 신설된다.

지난해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국방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인력을 보강한다. 이진숙 기자 jslee@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

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낮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원에서 26~16만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손영대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③-1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삼습니다. *아래의 글은 당시 대한간호협회 홍옥순 제2부회장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요약한 것이며,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간호사업 발전과 진보의 길 열기 위해 국가적으로 간호대학 설치를 요구한다

[대학문제]

때는 바뀐다. 어제와 같은 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의 아는 것이 많아도 못하거나와 세계는 날로 나아가고 달로 바뀌는 것이 한 초 한 초를 다투어 이십세기 전반에 비교한 오늘의 속도는 일 년에도 몇 십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머무를 수 없고 배워야만 산다.

우리의 간호사업은 유약을 보호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또 간호함으로써 행복을 가져오고자 함이니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질적 향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 문제를 중요하게 본다.

간호부 양성소로부터 고등간호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자격과 교육내용을 올려 일반의 새로운 인식을 꾀하면서 보다 나은 간호를 이바지하려는 우리 교육기관의 노력은 꾸준하였다. 그러나 지도자의 부족과 사회적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교수 간호원과 간호연구기관에 긴급한 국내의 처리를 하지 못한 채 해방 후 5개년을 보냈다.

배움의 부르짖음이 한 정도에 이르러 우리사회 여성 교육에 최고관인 이화대학 안에 우리 선배 이정에 선생의 큰 노력이 간호과 설치를 보게 되며 전국 내 각 사회 인사를 비롯하여 우리 간호인들의 기쁨은 최고에 달했었고 새로운 자량과 민족을 품었던 일 어제와 같다.

뜻밖에 6.25 동란이 원인으로 우리 간호대학은 문이 닫혔거나 그라다면 왜 다른 대학은 다 텐트 토막집에서도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가는데 우리의 앞길만은 캄캄해졌나? 배우려는 학생이 적어서인가? 가르칠 선생이 부족해서인가? 학교집이 없어서인가? 간호대학의 필요가 약해져서인가? 학교당국으로서? 사회적으로? 경영곤란으로? 등등 심심한 연구와 조사를 해보아도 분함과 원망만이 생각을 막는다.

급년에 들어서 세브란스 간호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입학할 허락했다. 물론 대학수준이다. 머지않아 뚜렷하게 간호대학으로 인정받고 더욱 연구과를 두어 다른 일반 간호학교를 나올 자격 간호원들에게 또한 나이갈 기회를 열어주기 바란다.

경제 여하 기타 문제들로 외국유학이 어려운 이때 희망이 있고 유능한 우리 간호원과 학생들에게 국내에서 배울 수 있고 동시에 사회에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길이란 무엇보다도 긴급을 요하는 과제 하나이다. 배움은 실천을 위함이고 경험 역시 배움을 위함이나 우리는 보다 더 기초와 사회와의 관련 그리고 후배를 기르기 위한 지도자의 양성 그리고 사업의 발전과 진보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간호대학의 설치를 요구한다.

(☞ 다음호에 계속)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업)